

목포대, 국외 시장 개척 지원

남부아시아 해외 진출 시장 개척 지원해 상담건수 37건, 수출 상담액 50만 달러 성과



국립목포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LINC+사업단)의 글로벌 비즈니스 링커가 남부아시아 해외 진출을 위한 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하였다.

남도 소재의 가족회사인 벡터네이트코리아, 에이치유원(주), 천풍무인항공과 함께 참가하여 시장조사, 바이어 상담, 현장 판매, 상품 홍보 활동 및 통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바이어 상담건수 37건, 수출 상담액 50만 달러의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연막기와 소독기를 생산하는 벡터네이트코리아는 전시회에 참가한 바이어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받았으며, 현지 유통업자와 심도있는 수출상담을 진행하여 향후 인도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LITF는 인도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전시회로써 B2B와 B2C가 다양하게 참가하는 전시회이다.

한편, 목포대학교 LINC+사업단은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망을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비즈니스 링커'를 선발 및 육성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2019 인도 국제 무역 전시회(India International Trade Fair 2019)'에 글로벌 비즈니스 링커 4명이 참가했다. 글로벌 비즈니스 링커들은 전라

프랑스 하원의원 5명 · 프랑스 대사, 광주 대광여고 방문

2015년 교류 시작 매년 교차 방문 국제 교류 · 양국 우호 증진에 기여

주한 필립 르포르 프랑스 대사와 하원의원 친선협회 프랑스 사절단이 26일 오전 11시 광주 대광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대화 시간을 가졌다. 12월 6일에는 프랑스 몽페리에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대표단이 대광여고를 방문한다.

광주 대광여고와 프랑스 간 친선관계는 2015년 시작했다. 2015년 6월 대광여고에 재직 중인 양수경 교사가 프랑스 학술광현 훈장을 받은 후 2017년 10월 프랑스 교육대표단의 방문, 2018년 9월 프랑스 대사의 방문 등 프랑스 고위층 인사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대광여고는 2018년부터 몽펠리에 장모네 고등학교와 각각 12명 학생들이 참여하는 홈스테이 방식 국제교류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 프랑스 국빈 방문 때 대광여고 학생들이 프랑스 대통령의 엘리제궁 초청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대광여고 유양식 교장은 "지난해 12월 광주시교육청과 몽페리에 교육청이 상호 간의 교육, 역사, 문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해를 높여 나가는 일환으로 체결한 협약(MOU)에 대한 프랑스 고위층의 지대한 관심

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교에서 모법적으로 시행 중인 국제교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번 방문 의미를 설명했다.

26일 대광여고를 방문한 사절단은 조아킴 손-포르제 국회의원(한남 하원의원 친선협회장, 국방위원회 위원), 스테파니도 국회의원(한남 하원의원 친선협회 부회장, 경제위원회 위원), 미셸 에르비우 국회의원(한남 하원의원 친선협회 간사, 외교위원회 부위원장), 드니 마세글리아 국회의원(한남 하원의원친선협회 간사, 외교위원회 위원), 피비앙레네 국회의원(한남 하원의원친선협회 소속의원, 국방위원회 위원) 등이다. 주한 프랑스 대사 필립 르포르, 정무 참서관 다비드 프노, 행정관 소피 틀라드 등이 함께했다.

광주중앙도서관, 책 나눔으로 꿈을 나눕니다



광주중앙도서관이 14일부터 20일까지 동구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방문해 도서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광주중앙도서관은 도서관으로 기증된 도서에서 복본이나 기타 사유 사유로 자관 소장이 어려운 도서 중 보존 상태, 독서 연령, 주

제 등을 고려해 지역아동센터별로 65권, 총 195권을 재 기증했다.

선정된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광주중앙도서관이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을 함께하는 동구 관내 지역아동센터로 계림지역아동센터, 디딤돌지역아동센터, 신수중앙지역아동센터 등 총 3곳이다. 책 나눔 행사는 도서관에 있는 도서의 재 기증으로 학생의 독서활동 지원뿐 아니라 자원의 공유와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광순 관장은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꿈을 주고 평생의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 영산초 박소연 학생과 특별한 만남



지난 25일 오후 전남도교육청 5층 교육감실에서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목포 영산초등학교 6학년 박소연 학생이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한 것. 장석웅 교육감은 아버지(박석민 · 코레일 광주지역본부), 어머니(박미숙)와 함께 온 소연 양을 반갑게 맞았다.

이들의 만남은 한 달여 전 토크콘서트 현장에서 한 약속으로 이뤄졌다. 지난 10월 21일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립도서관에서 열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에서 소연 양의 아버지는 방청석 질문을 하며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은 딸아이를 한 번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장 교육감은 흔쾌히 수락했고, 한 달여 만인 이날 만남이 성사됐다.

장 교육감과 소연 학생은 30여 분간 관심 분야인 역사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소연 양은 "초등 1,2학년 때 방과후 독서토론 모임 활동을 하면서 한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면서 "수업 시간에 반 친구들 앞에서 역사 이야기를 해 줄 정도로 실력도 갖췄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역사학과 교수가 되는 게 꿈"이라는 소연 양은 특히, "일제 강점기에 관심이 많고, 평민 출신 신동석 의병장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역사 교사 출신답게 소연 양에게 역사 공부와 관련에 친절한 상담을 해줬다. 그는 "어린 나이에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는 소연 양이 대견하다."며 "세계사에도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 한국사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더불어, 학생 스스로가 기획하고 팀을 구성해서 꿈을 향해 도전하는 '미래도전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며 "내년 중학교에 입학하면 도전해 볼 것"을 권유했다.

장 교육감은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소연 양의 질문에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던 중·고교 때 얘기를 들려주며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업 끝나면 도서관으로 가서 당시 발행되던 대역서까지 신문을 모조리 읽었다."며 "상식도 늘려주고, 글쓰기 능력을 키워주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 이 일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해주었다."고 소개했다.

이에 소연 양도 "주말이나 방학 때면 집에서 가까운 전남도립도서관을 자주 찾는다."며 "앞으로도 더 열심히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 역사 교수의 꿈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소연 양의 아버지 박석민 씨는 "토크콘서트 현장에서 가볍게 면담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잊지 않고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초등학생 딸아이에겐 잊지 못할 추억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나주교육청, '모두 다(多)함께하는 교육공무직원 연수'



나주교육청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제주도 일원에서 1박 2일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무행정사, 특수교

육실무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전문상담사 등 다양한 직종이 '모두 다(多) 함께하는 교육공무직원 연수'로 ▲우리나라 역사 바로 알기 위한 제주 4·3 평화기념관 관람 ▲제주 혁신교육 경험을 위한 제주 혁신 학교 방문 ▲교육공무직원 직종 간 상호 소통과 협력을 배울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에 참석한 교육공무직원은 "제주 4·3사건의 슬픈 역사

를 배우며, 우리 아이들 생각이 많이 넓어지며 이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주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직종의 교육공무직원이 만나 나주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한 아이의 미래를 디자인 하는 행복 나주교육 기반 확립을 위해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